

# 2021년 1/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0. 12

창원상공회의소

##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 12. 8 ~ 12. 21(휴일제외 15일 간)
- 분석대상 : 128개 응답업체 (표본 제조업체 239개)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수	27	101	34	94
비중	21.1	78.9	26.6	73.4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금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매수	21	23	29	26	12	17
비중	16.4	18.0	22.7	20.3	9.4	13.3

### 3.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II

## 요약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 이후, 가파른 경기악화 추세를 보였던 창원지역 제조업의 경기가 2021년 1분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창원 제조업 체감경기지수(BSI)가 2020년 3분기 '39.5', 4분기 '51.6'로 최저 수준을 보였으나, 2021년 1분기는 '87.5'로 기준치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냈음. 이는 경기악화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종전보다 다소 완화할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전 산업에 걸쳐 경기악화가 점쳐졌던 2020년과 달리 2021년 1분기는 업종별로 지수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전망BSI의 경우 '전기전자'(123.8)와 '기계'(103.4) 제조업은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철강금속'(65.4)과 '기타운송장비'(66.7) 제조업은 기준치를 한참 밑돌았음. 최종 완성품을 기준으로 업종을 세분화해보면, 기계업종 중 공작기계(152.9)와 건설중장비(122.2) 제조업이 긍정적 전망을 내어놓고 있음.
- '시장전망 불투명'과 '코로나 현안 대응' 등으로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차질
  - 응답업체 13.5%만이 '계획 수립했거나, 수립 중'으로 응답
  - '계획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업체 65.6%는 보수적으로 사업계획 잡아...
  - 2021년 신규채용, '올해보다 줄일 것' 29.7%, '올해와 비슷' 60.9%...  
'올해보다 늘릴 것' 9.4%에 그쳐
- 응답업체의 75.2%, '수출여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할 것' 전망
  - 악화전망 이유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수요 위축' 58.2%, '환율 변동폭 심화' 20.4% 등 꼽아...
  - 기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달러 환율 수준 '달러당 1,096.9원' 제시  
마지노선 환율, '1,060원 ~ 1,140원' 사이 집중 분포  
→ 현 환율(1,108.90 12/24)도 기업활동 어려운 수준

### Ⅲ

## 2021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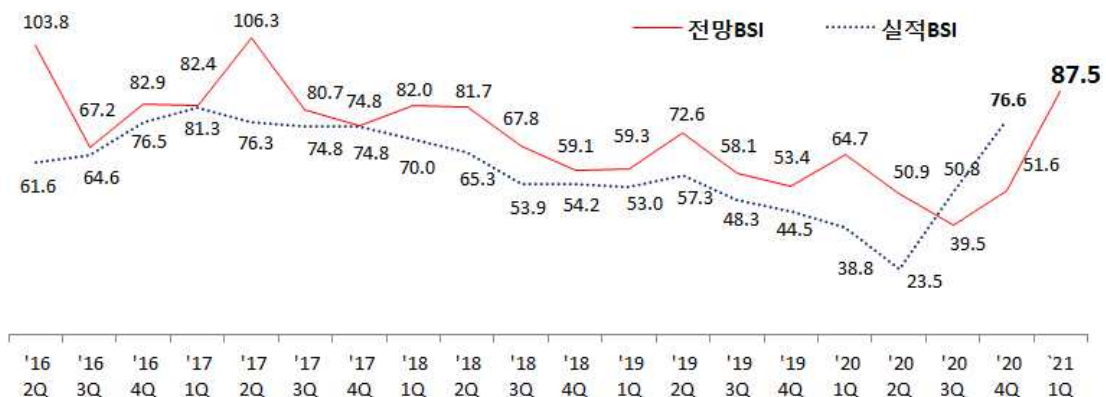
- 2021년 1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87.5'로 조사되었음. 지난 3분기 '39.5', 4분기 '51.6'로 지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분기는 기준치(100)에 근접한 지수를 보였음.

경기악화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속도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2020년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51.6'으로 조사되었음. 실적BSI 역시 2분기 '23.5', 3분기 '50.8'를 기록한 이후 4분기 '76.6'을 기록해 전망BSI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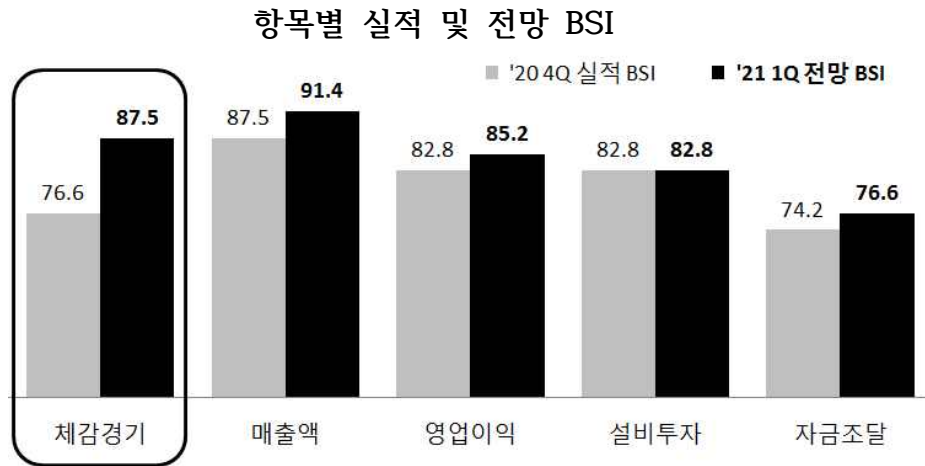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산업 생산 및 매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란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2분기와 3분기 당시, 공포 수준의 전망보다는 다소 완화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실적을 나타낸 것임.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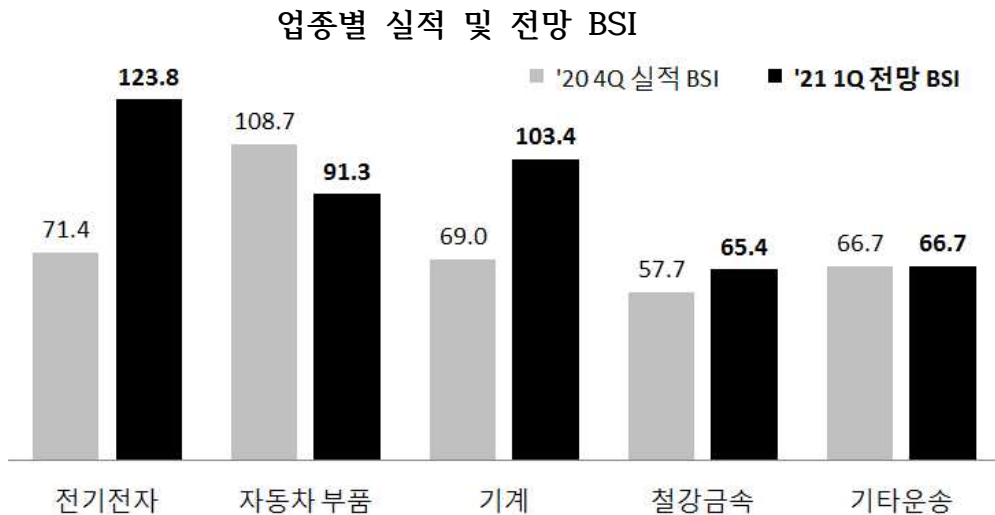


## 2. 항목 및 업종별 전망

- 2021년 1분기 체감경기 전망BSI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가운데, 매출액 전망BSI는 기준치에 근접한 '91.4'로 조사되었음. 이밖에 영업이익(85.2), 설비투자(82.8), 자금조달(76.6)로 나타나 기준치를 하회하였으며, 실적BSI 보다는 비교해 높은 지수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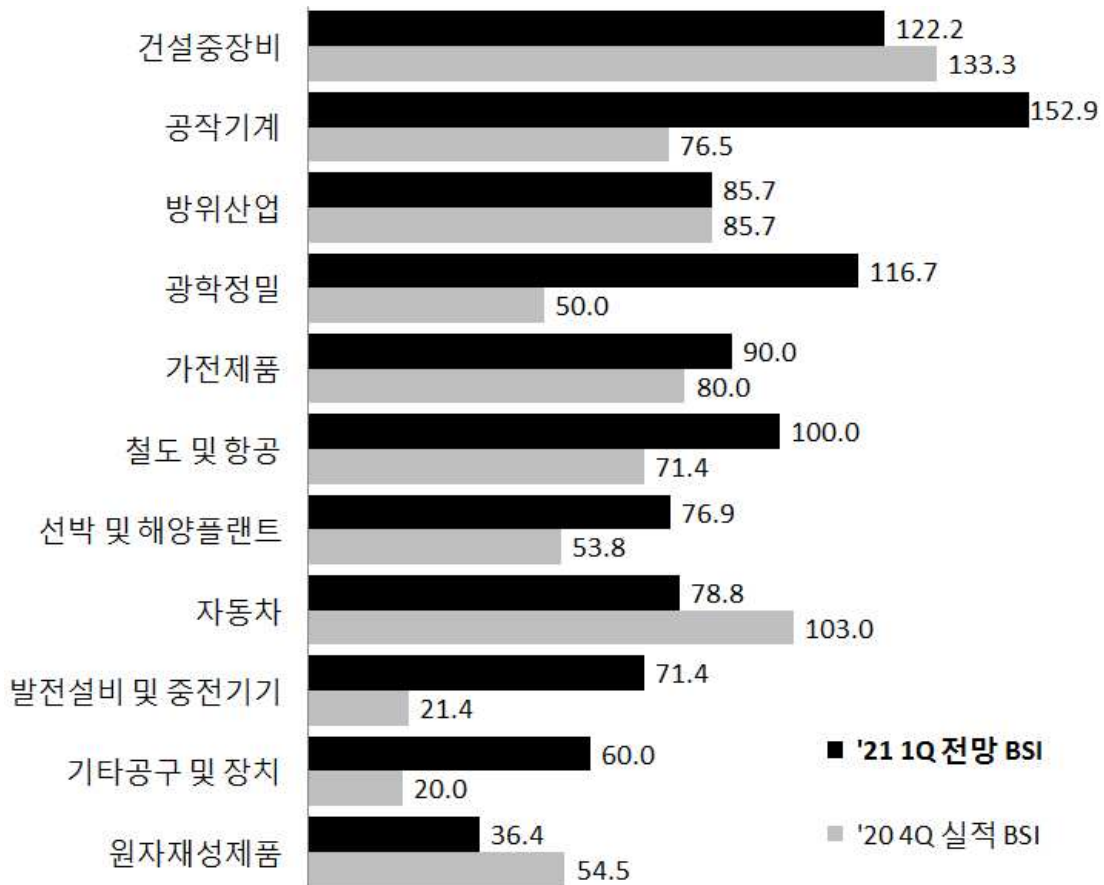


- 2020년 2분기 이후 업종과 무관하게 경기 악화를 전망해온 것과 달리 2021년 1분기 전망은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전기전자'(123.8)와 '기계'(103.4) 제조업으로 기준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지수를 보였음.



- 2020년 실적BSI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기준치를 웃돌았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 실적BSI가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던 업종임을 미루어보면, 실적회복 보다는 저효과로 풀이할 수 있음. 반면, ‘철강금속’과 ‘기타운송’ 제조업의 실적과 전망BSI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 완성품 기준으로 업종을 세분화하면, 기계업종 중 공작기계(152.9)와 건설중장비(122.2)가 2021년 1분기를 전 분기 대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특히 건설중장비의 경우 2020년 4분기 실적BSI가 ‘133.3’로 기준치를 상회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최종 완성품 기준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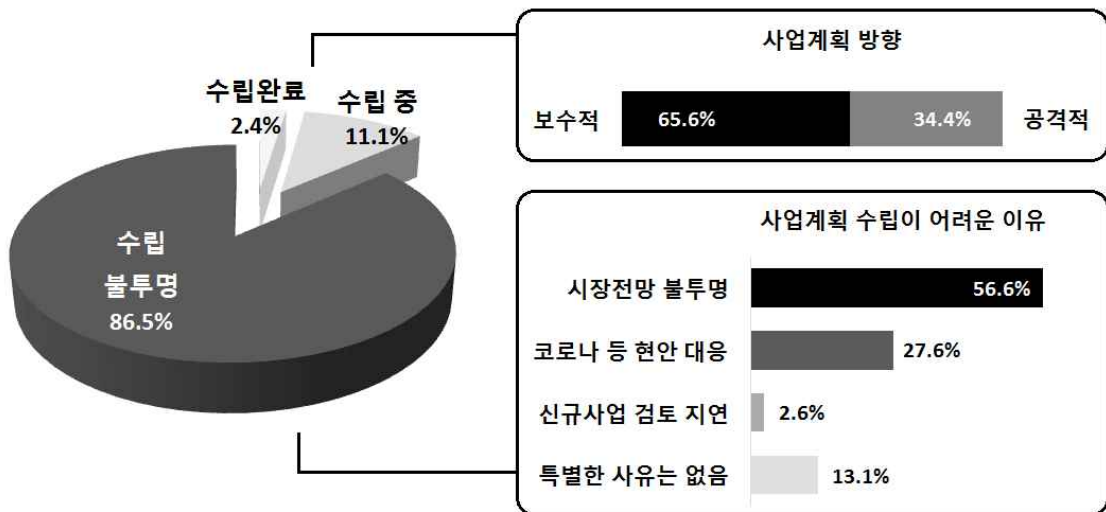


## 2. 2021년 사업계획

### 1)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

- 2021년 사업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4%만이 ‘수립 완료’로, 11.1%는 ‘수립 중’이라 응답했음. 이들 업체의 사업계획 방향으로 65.5%는 내년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로, 34.4%는 ‘공격적으로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고 답했음.
- 반면, 응답업체의 86.5%는 ‘수립 자체가 불투명’으로 답했음.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는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수립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장전망 불투명’이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 때문에’ 27.6%, ‘신규사업 검토 지연’ 2.6% 순으로 답했음.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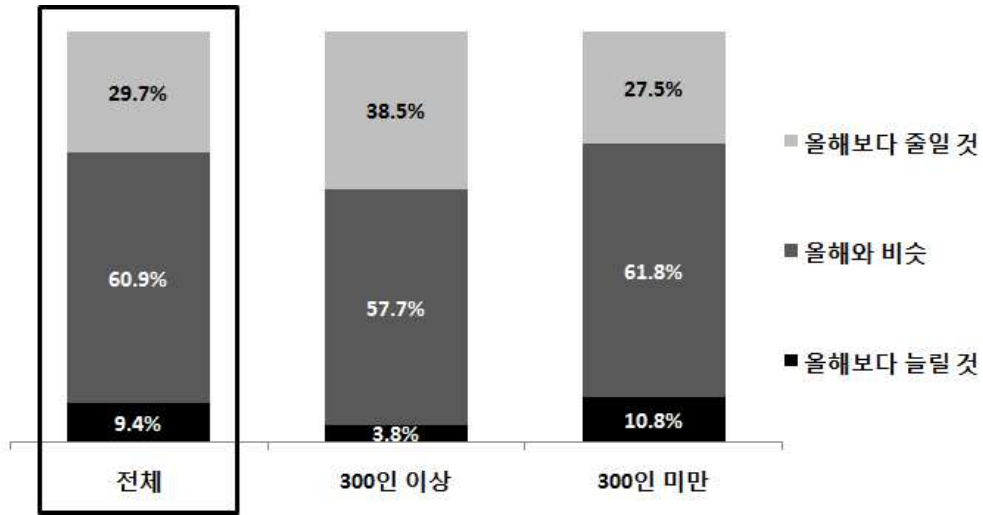


### 2) 2021년 신규채용계획

-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0.9%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29.7%는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답했음. 9.4%만이 9.4%는 ‘올해보다 늘릴 것’이라 응답했음. 채용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이 ‘300인 미만’ 기업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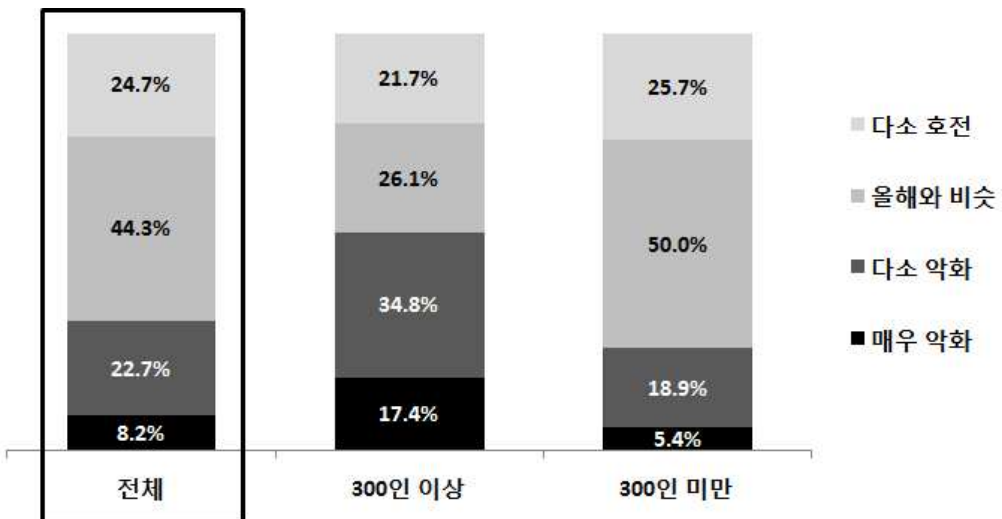
2020년 대비 2021년 신규채용 계획



3) 2021년 수출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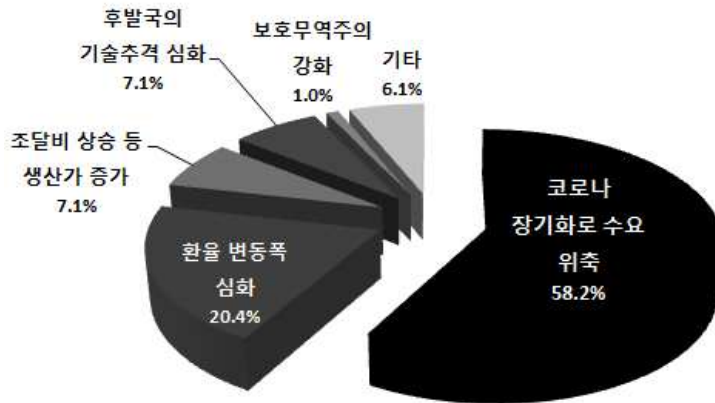
-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수출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2.7%가 ‘다소 악화할 것’으로, 8.2%는 ‘매우 악화할 것’이라 답해 30.9%가 올해보다 수출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반면 24.7%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4.3%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답했음.

2020년 대비 2021년 수출여건 전망



- 수출여건 악화를 전망하는 이유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수요 위축’을 58.2%가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율 변동폭 심화’ 20.4%,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와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추격 심화’가 각각 7.1%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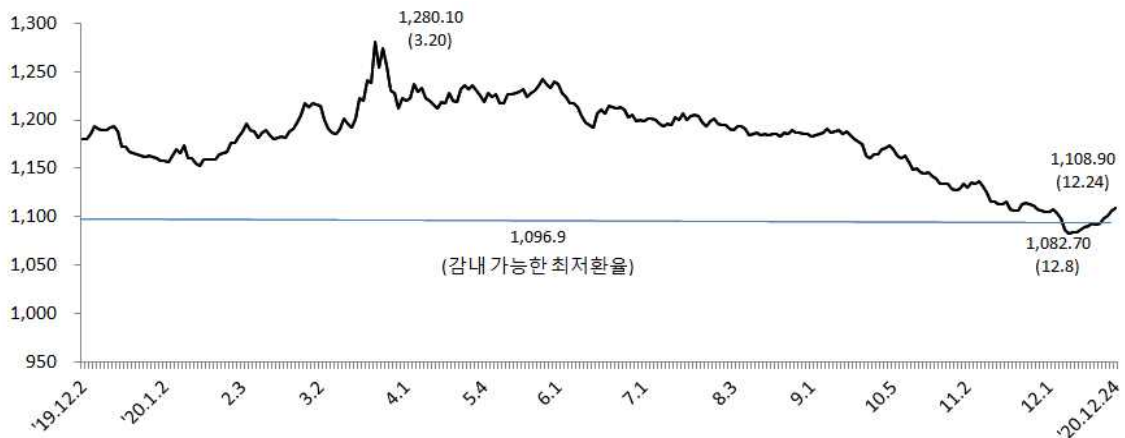
### 수출실적 악화 전망 이유



-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커진 가운데, 기업이 감내 가능한 최저환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102개 업체)는 ‘달러당 1,096.9 원(응답평균)’으로 답했으며, ‘1,060원에서 1,140원’ 사이에 절반이상이 분포하고 있음. 정상 경영을 위한 환율 수준이 아닌 경영활동 유지를 위한 환율임을 감안하면, 현 환율(12월 24일 기준 원/달러 환율 1,108.90 원) 역시 안정적 수익을 내기 힘든 수준임을 시사함.

###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 자료 : 한국은행(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8시 10분대 시세)